네티즌들 요즘 특별한 맛에 매료되다

일본드라마, 참 다양한, 짧은 스토리의 여운

드라마 BLOG

고등학생 때 우연히 일본 드라마를 접한 이후 줄곧 일본 드라마만을 보고 있다. 간간이 미국 드라마를 봤고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빨리 미국 드라마를 접하고 즐겨봤지만, 일본 드라마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최근에서야 들었다. 나는 왜 일본 드라마를 즐겨볼까. 그 이유와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접할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1. 소재의 다양성

일본 드라마는 특성상 보통 일주일에 한 번, 10~11편을 방영하면 끝이 난다. 한국이 드라마 왕국이라지만 일본에 비할 바가 못된다. 많은 방송국에서 매일 다른 드라마를 선보여야 하는 일본은 소재의 다양성에 있어서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렌디·사극·코미디·SF·멜로·스포츠 등 장르의 다양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었지"라고 할 만한 시나리오까지도 모두 드라마화가 가능하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한국 드라마와는 다르다. 속된 말로 한국에서 병원 드라마는 병원에서 사랑하는 얘기고, 법원 드라마는 법원에서 사랑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건 일본 드라마에 없다.

2. 현실성

일본 드라마가 특유의 오버액션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현실성으로 따지면 일본 드라마만한 게 없다. 시나리오 특성상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 충분히 주위에서 벌어질 법한 상황이고 소재들이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특유의 상세함과도 연관이 된다. 드라마에서 현실처럼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대사가 나올 수 있고, 특정 회사의 실명이 그대로 나온다. 이런 것들에서 드라마가 현실성이라는 옷을 입고 태어난다.

3. 상세함(detail)

일본 드라마는 디테일하다. 일본 특유의 국민성 탓인지는 몰라도 보다 보면 '이런 것까지 신경 썼나' 싶은 아기자기함과 꼼꼼함이 엿보인다. 드라마상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도 될 부분, 예를 들면 주인공의 방·사무실 등을 보면 주인공의 성격과 직업을 충분히 반영한 소품과 인테리어로 놀랄 때가 많다.

4. 짧고 구성지다.

미국 드라마가 재미있음에도 최근 내가 흥미를 잃은 이유는 바로 시즌제 때문이다. '프리즌브레이크'는 스코필드가 감옥을 탈출하고 쫓기면서 슬슬 흥미가 떨어졌고, '로스트'는 밑도 끝도 없는 떡밥의 연속이다. 도대체 이 얘기가 언제 끝날지, 게다가 그 끝도 정해지지 않아 언젠가 말도 안되게 끝마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도 떨어지고 흥미가 반감된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보통 10~11편으로 깔끔하게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더 강하다. 보통 16~18편으로 구성된 한국 드라마에 비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속도감도 장점이다.

5. 생각하게 한다

소재 한계 한국 드라마, 비현실적인 미국 드라마와 차이

드라마 '마녀의 조건' 중. 여선생과 제자의 사랑을 그렸다.

일본 드라마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말은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다. 별것 아닌 사건에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유난을 떠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저러겠나 싶으면서도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제대로 오락물을 표방하고 나선 드라마가 아닌 바에는 보통 시나리오상 교훈적인 느낌이 들게끔 구성돼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상황이나 주위 상황에 비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이나 미국 드라마에 비해 현저히 많다.

6. 유행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유행을 따라간다. 인터넷 발달로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막연히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보며 '뭐 저렇게 하고 다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문화적 차이에 의한 거부반응일 뿐이다. 과거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이 서서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도 유행이 늦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이 곧바로 유행하듯이 일본도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저런 것이 유행하게 된다. 또 그것이 몇년 후에 한국에 전해지는 게 지금까지 내가 본 공식이다. 일본 드라마를 보며 2~3년 후면 한국에서도 유행하겠다 싶은 것들은 어김없이 한국에서 유행한다.

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상 여섯 가지가 일본 드라마를 즐기게 되는 이유이고 일본 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주위에서 맨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이다가 한번 접한 이후로 일본 드라마 폐인이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봤다. 진작에 내 블로그에서도 꽤 많이 언급한 '백의거탑'이 리메이크돼 호평을 받은 것을 보며 한편으론 웃기기도 하고 재미가 있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방송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잘못도 크다. 직업 묘사에 있어서 일본 드라마처럼 자세히 짚고 싶도 시청자 항의 때문에 엉거주춤 사랑 얘기로밖에 빠질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이 믿지 않은가.

나이트엔데이(nitenday.egloos.com)

테마·장르별 입문용 일본 드라마 추천합니다

일본 드라마 입문용으로 각 장르별 작품을 추천한다. 일본 드라마 마니아들 사이에서 검증된 드라마들이다. 입맛대로 골라 보시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속도위반결혼'

'세상의중심에서사랑을외치다'

'사랑따윈필요없어'

미친듯이 웃고 싶을 때	
키사라즈 캐츠아이	
타이거 앤 드래곤	
노다메 칸타빌레	
맨하탄 러브 스토리 (진짜 죽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가는 4화 이후부터 그전까지는 꼭 참고 봐야합니다.)	
전차남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1리터의 눈물	
사랑따윈 필요없어, 여름	
섬머 스노우	
트렌디 드라마	
사랑의 힘	
속도위반 결혼	
중매결혼	
마녀의 조건	
일반 드라마	
사토라레	
야마토 나데시코(요조숙녀로 리메이크됐던 작품)	
백의 거탑	
여왕의 교실	
스릴러물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히어로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 (IWGP)	
트릭 시즌1,2,3	

일본 자위대 영상, 누리꾼들 뜨거운 논쟁

ISSUE BLOG

최근 인터넷에 일본 자위대 영상(사진)이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영상은 일본 자위대 헌법 경찰 영상이라는 게시물로 벌써 1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보유한 각종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어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등의 주제로 격론을 펼치며 만약에 있을 전쟁상황을 우려하는 반응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진리 IS 리포터

〈광고〉

유슨 제트그립 등산화 파격가 할인!!!

TV홈쇼핑 판매가 ~~39800원~~ → 19800원

300분 한정 등산용 양말 증정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3사의 레포츠 전문 브랜드 '유슨(USSSN)'이 2007년 정해년을 맞이하여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이미 현대홈쇼핑에서 '고객만족 우수상품' 1위에 선정되어 그 제품성을 인정 받은 유슨 등산화를 홈쇼핑보다 무려 2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거기에다 300분 한정으로 등산용 양말까지 증정한다.

유슨 등산화는 합성피혁이 아닌 고급등산화에만 사용하는 천연 소가죽 소재와 라텍스 깔창을 채택하여 신행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400g대의 초 경량화를 실현하여 여성이나 노약자분들도 쉽게 산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천연고무 바닥창은 바위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설계되어 충격흡수는 기본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

주문전화 080-701-7777 (배송비 별도)

한지희 ismd@

▲사은품

한 영화제작자의 '충무로 이야기'

배우 L의 소문과 진실

영화 BLOG

배우 L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좀 부정적이었다. 영화 속 캐릭터는 말 그대로 연기일 뿐인데 그가 종종 맡아온 역할들이 준 편견이 있었던지 혹은 영화판에서 '묻지마 통신'으로 들려오는(하지만 나름대로 정확한) 구전 정보로 인해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그에게 뭔가 거들먹거린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수업을 내팽개치고 충무로 영화사들을 찾아가 "저, L입니다. 저 배역 하나만 주세요"라며 배역을 구걸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다녔고, 어느 영화사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출근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L의 충무로 데뷔 배역은 등장하자마자 숨지는 시체 역할로 기억한다. 키가 크지도 않고, 꽃미남도 아니고, 목소리조차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한 당시의 그는 지금 내 책상 한 쪽을 채우고 있는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꾸벅 인사하고 놓고 간 수많은 프로필 속의 무명배우였을 터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프로듀서로 무명배우의 수많은 프로필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사막의 모래알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에 L의 성공기는 가위 대단한 것이다. 무명시절 L의 장단점을 생각했을 때 단지 운만으로 이런 성공을 거뒀다고 말한다면 한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경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던 중 캐스팅 때문에 L을 만났다. 그는 의외로 조심스러워 했으며 뜻밖에 신중하고 진지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전에 어디서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나에게 첫인사를 건네는 L에게 나는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결단코 나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말이다. 시나리오를 상당히 꼼꼼히 읽고 나온 배우와의 만남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과 동시에 기분 좋은 쾌감을 준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배우가 돼보지 못한 관계로 그들의 방식을 알지 못한다. 배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찌르기 시작하면 엉덩이가 따갑고 식은땀이 흐른다. 반면 우리가 고생고생해 설치한 시나리오의 밀도있는 장치를 체크해 내는 배우의 능력은 오르가슴까지 느끼게 한다. L이 그랬다.

L이 고민 중인 상황에서 만난 자리다. 그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답을 들려줬고, '오늘 정중하게 얼굴 보고 거절'하려는 마음이 컸던 L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민중'으로 돌려놓고 자리를 마쳤다. L은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저는 아직도 '저 좀 시켜주세요, 제발 시켜주세요'라고 구걸하고 다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배역을 주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어찌 보면 울먹거리는 듯한 목소리를 통해 나는 L의 진정성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초년시절 사연들을 가득 담아놓은 듯한 그의 눈빛을 보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거들먹거림'을 지웠다.

파토스(egloos.com) 원작자의 요청에 의해 URL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조병환 | 디자인 박지혜

발칙 혹은 대담

6인6색 **섹시 토크** 릴레이

{ 월-이연희 '여우 사랑' / 화-미스 와플 '처녀들의 수다' / 수-김 작가 '섹스올로지'
목-이영미 '에로 스케치' / 금-이윤수 '고추박사 상담기' / 토-까칠녀 '쇼퍼홀릭' }

이윤수 '고추박사 상담기'

술자리에서 외치는 건배 구호에서 시대에 따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말에는 '위하여'가 있다. 조금 나이를 먹은 분들 모임에서는 '구구팔팔'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늙어서 아흔아홉(99) 살까지 팔팔(88)하게 잘살자는 것이다. 요즘 구호가 바뀌어 새로운 버전은 '구구팔팔 234'라고 한다. 아흔아홉 살까지는 당연히 살되 2~3(23)일 동안 앓다가 바로 사망(4)하자는 것이다. 괜히 병원이나 자식 신세를 지며 구차하게 삶을 이어 가는 것보다는 때가 되면 누구 신세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 성싶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수명의 연장보다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필자는 곧잘 "나이를 먹어서 언제까지나 성관계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받곤 한다. 옛말에 "남자는 발기가 가능할 때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며, 여자는 무덤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의 발기 능력이 떨어져 부부 관계를 갖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때는 나이 먹어서 발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젊어서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란 말이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 정력이 고갈되니 젊어서부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라는 충고일 것이다.

무덤까지 연장된 현대인의 성생활

그러나 현대에 들어 남성 의학의 발달은 옛 의학 이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발매되는 발기 유발약은 노년기의 일상생활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뒤바꿔 놓았다. 이른바 "노인의 성에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약 덕분에 나이에 관계없이 성을 즐기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먹는 발기약의 위력은 영화 속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란 영화에서는 발기약까지 먹어 가며 성을 쫓아다니는 노년의 잭 니콜슨 모습을 코믹하게 보여 줬다.

현대 의학은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혁명을 가져왔다. 주변을 보면 나이를 먹었어도 젊은 오빠(?)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무덤에 갈 때까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우습게 들리지 않을 만치 성의 혁명이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즈음이다.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영화 속의 니콜슨 못지않은 삶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젊은 남성들이 성관계가 안된다며 찾아온다. 성욕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성생활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이다. 몸은 젊었으나 성능은 "구구팔팔"을 외치는 중장년보다 못한 것이다. 젊어서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이윤수는?

명동이윤수비뇨기과(www.penilee.co.kr · 02-779-4500) 원장. (사)한국성과학연구소장. 국내 최초로 음경 배부신경 차단 수술 및 성기 확대 수술 시술. 1997년 이후 한국판 킨지 보고서인 '한국 성인 남녀 성 실태 조사'를 해 오고 있다.

Weather & Life

5월4일 (음력 3월 18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강릉 영동	
30% 13~20℃	30% 10~22℃	30% 16~27℃	
전북	충북	대구 경북 포항	
60% 13~21℃	30% 11~23℃	40% 15~21℃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중부지방은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60% 14~20℃	30% 10~22℃		
제주	부산 경남		
80% 18~20℃	60% 14~18℃		

생활지수: 냉방:20% 세차:90% 외출:60% 세탁:50%

	서울·경기·강원·영서	강릉·영동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
5(토)	15~22℃	15~22℃	10~22℃	10~22℃	14~20℃	15~19℃
6(일)	16~20℃	12~22℃	13~19℃	13~19℃	13~19℃	15~19℃
7(월)	15~23℃	13~24℃	11~24℃	11~24℃	12~21℃	14~19℃

해뜸	05:34	밀물	05:52
해짐	19:24		18:00
달뜸	21:31	썰물	12:13
달짐	06:05		--:--

제공: 케이웨더(주) 02-360-2200 www.kweather.co.kr

www.isplus.com

1S 일간스포츠 1969년 9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가-45 1999년 1월 1일 국유철도 특별급 승인 제 1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쇄인 장중호 편집인 박종권

(우)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빌딩 16층 구독료: 한달 1만원, 1부 500원

안내전화 02-6363-1313 편집국 FAX 02-6363-1386 고객센터(구독 신청·배달) 1588-3600 광고문의 02-6363-1366